

# 눈길 끄는 ▶ 광섬유 광고시스템 ◀ 개발

## 상용제품 개발에 성공한 광섬유 광고시스템

(주)지론테크놀러지(대표 최현철 <http://www.zeronetech.com>)는 1999년 12월에 설립되어, 2002년 7월 광주·전남테크노파크 사업화동을 졸업하고 공장 및 사무실을 광주광역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광산업집적화단지에 신축·이전함으로써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고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론테크놀러지는 상용제품 개발에 성공한 광섬유광고시스템 사업과 중장기 연구개발 중심의 광통신용 부품소재 개발사업 등 두 가지 분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광섬유광고시스템은 무전원 광섬유 표시시스템(제품명 eFreeSign)과 초절전형 광섬유 광고시스템(제품명 MiraLite)으로 기존 표지판과 광고간판에 비해 시인성 및 관독성이 우수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제품이다. 이 제품은 플라스틱광섬유(POF; Plastic Optical Fiber)에 자체 개발한 조광장치를 통하여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각종 이미지를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시켜 주는 새로운 개념의 광고시스템이다. 특히 기존의 네온간판 등에 비해 전력소모가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여 요즘과 같은 고유가시대에 알맞은 간판이며, 유지보수가 쉽고, 필요에 따라 표현하는 색상 및 패턴 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론테크놀러지의 많은 연구와 기술개발에 의하여 다양한 용도의 옥외용 간판으로 국내 최초로 상용화되었으며, KT 옥외용 인지사인, 전남 완도군 관문 대형 아치탑, 완도군

음식특화거리 지주사인 등에 적용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및 평가와 고급스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론테크놀러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홍보사업, 대기업 CI 변경사업 등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하여 활발하게 영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최현철 사장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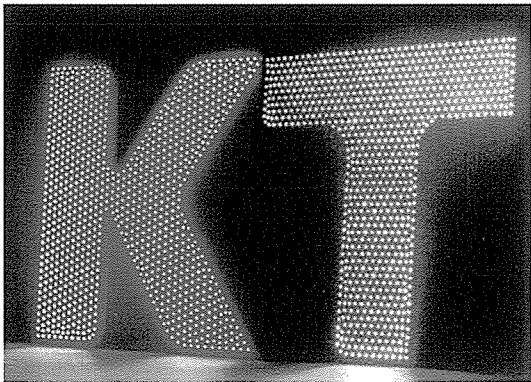
## 광통신 관련 부품소재 중 고분자계 재료 개발에 박차

한편 광기술연구소에서는 광통신 관련 부품소재 중 고분자계 재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관련 소자의 소형화 집적화를 위한 Micro fabrication용 및 광부품 접속용 광기능성 고분자 재료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회사의 기술연구소는 대용량의 광통신 및 정보기록과 정보처리의 초고속화를 실현하기 위한

광신호 전달용 도파로 소재, 광신호 처리용 광전자 소재와 같은 광통신소재용 고분자계 재료와 소자의 소형화와 집적화를 위한 Micro fabrication 용 및 광부품 접속용 고분자 소재에 이르는 광기능성 고분자 재료전반에 대한 연구를 국책사업 및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진과 신소재위 분자설계 합성기술, 광소자 응용 및 광기능성 평가기술 등의 첨단기술을 축적하여 기술집약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 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

지론테크놀러지는 광섬유광고시스템분야에서만 지난해 하반기 중 7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최현철사장은 "올해를 광섬유광고시스템의 성장 단계로 삼아 공격적인 시장확대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설치한 제품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올해 매출 목표를 30억원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

발사업에 선정되어 광주과기원, 한국광기술원 등과 산학연 연구체제를 구축하여 신소재의 분자설계, 합성기술, 광소자 응용 및 광기능성 평가기술 등의 첨단기술을 축적하여 기술집약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성장의 길목에 서 있는 지론테크놀러지는 현장경영, 투명경영, 책임경영, 민주경영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국내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